

## 1. 개요

안녕하세요 저는 기계항공공학부에 재학중인 장원철이라고 합니다. 외국 생활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과 낯선 곳에서의 새로운 도전을 경험해보고자 졸업을 미루고 지난 학기에 벨기에 KU Leuven으로 교환학생을 다녀왔습니다.

서류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고 수강신청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등 기본적인 사항들은 Leuven에 다녀온 다른 분들께서 너무나도 상세하게 설명해 두셨기에 그 중 각별히 신경 써야 할 부분을 간략히 설명 드린 뒤, 교환학생 기간 동안 제가 느낀 것들을 중점적으로 공유하고자 합니다. 교환학생을 혹은 또 다른 도전을 고민하고 있을 학우분들께 저의 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 2. 출국 전

출국 전 비자 서류를 구비하는데 있어서 가장 고생했던 재적 증빙에 대해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적 증빙이란 벨기에에서 교환학생으로 생활하는 동안 금전적인 이유로 고아가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충분히 금전적 여유가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와 같이 지방에 부모님이 거주하시며 서울에 친, 인척 분들이 계시지 않는 분들은 본인이 직접 재적 증빙을 하는 방법이 존재합니다. 이 과정에서 4,000 유로 정도의 금액을 해외로 송금하게 되는데, 흔히들 알고 있듯이 해외 송금은 예상치 못한 변수로 인해 절차가 늦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으며 송금 확인까지 넉넉히 2주 정도를 예상하심이 좋습니다. 따라서 비자를 신청하러 대사관에 방문하기 전에 건강검진과 재적 증빙을 최대한 빨리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재적 증빙을 위해 송금한 금액은 교환학생 생활을 하는 동안 개설하게 될 벨기에 계좌로 5개월에 걸쳐 분할 지급받게 됩니다.

### 3. 학기 중

Leuven은 지름 1.5km 정도의 아주 작은 학생 도시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을 위한 행사가 도시 곳곳에서 늘 진행되며 학생들이 서로 교류할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점이 Leuven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하며 이를 제대로 경험하기 위해서는 학기 초에 진행되는 캠퍼스 투어, 학교 생활 OT, 동아리 소개제, 버디 프로그램 행사, Cantus 등등 여러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행사가 있는지 Pangaea, ESN, KU Leuven 등의 페이스북 페이지에 항상 공지되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교 수업과 별개로 CLT에서 진행되는 언어 수업을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수강할 수 있습니다. CLT는 공대 건물과 붙어 있어서 큰 부담없이 수업을 들을 수 있습니다. 저는 한화로 15만원 정도의 가격에 영어 수업을 들었는데, 수업을 듣는 학생들의 나이대도 20대부터 40대까지 다양했으며 다양한 국적, 다양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과 대화 위주의 수업이 진행되었기에 영어 실력을 향상시키는데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 4. 교환학생 기간동안 느낀 점

#### A. 인종 차별에 대해서

흔히들 벨기에 사람들은 인종차별이 심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벨기에 친구를 만드는 것이 어려울 뿐더러 서로 피해주지 않는 관계만을 유지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저를 제외한 모든 입주인이 벨기에 학생인 기숙사에서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선입견을 가지기 보다 궁금했던 것 같습니다 이 친구들과 친해지면 얼마나 더 즐거운 교환 생활을 하게 될지... 그래서 기숙사 친구들이 복도에 나오는 소리가 들릴 때면 일부러 화장실에 가는 척 동선을 겹치기도 해보고 부엌에서 오랜 시간 식사를 하며 항상 친구들과 대화하려 했습니다. 각자 살아온 배경 그리고 관심사들을 이야기하며 서로에 대한 벽이 허

물어질 때 즈음엔, '함께 파티 할래?'라고 적힌 작은 쪽지를 방 문 앞에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5개월 뒤엔 그 친구들과 함께 루벤 축구 대회 우승까지 이뤄낼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어쩌면 주변 사람들과 소통하며 스스로를 동기부여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벨기에 친구들과 둘도 없는 친구가 되는데 필요한 것은 언어가 아니었습니다. 먼저 다가갈 용기, 항상 미소를 잃지 않는 것, 좌절하지 않고 끊임없이 진심으로 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사람들과 소통하는 방법이라는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벨기에인들의 인종차별에 대해 걱정하는 것만큼 동양인들이 생활하기 불편한 곳은 절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학생 도시인 Leuven에서는 이보다 더 고차원적으로 인간관계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세계 각 국에서 모인 친구들과 여행하고 대화하면서 세계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얻어갈 수 있는 감사한 장소로 기억에 남을 것입니다.

## B. 여행을 다니며

주변 국가들을 여행하면서 또한 많은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행을 다닐 때마다 일기를 쓰곤 했는데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그 중 하나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스위스 여행을 떠올리면 누구나 아름다운 대자연을 상상할거라 생각한다. 물론 나 또한 그랬다. 운이 좋게도 산에 올라갈 때마다 그 시간과 장소에 엄청 좋은 날씨가 항상 따랐다. 그래서 더 아름다운 광경을 볼 수 있었다. 융프라우에 올라갔을 때나 피르스트에서 길게 늘어진 알프스 산맥을 직접 눈으로 봤을 때는 정말 숨이 멎는 듯한 쾌감을 느낄 수 있었다.

첫째, 둘째 날에 그렇게 다들 보고 싶어 하는 광경을 두 눈으로 보고 나서 도장 개기에 성공했다는 뿌듯함과 안도감에 셋째, 넷째 날에는 잘 알려지지 않은 트레킹 코스를 찾아

혼자 다니기 시작했다. 혼자 여유롭게 호수를 보고 싶기도 했고 시끄러운 여행지에서 좀 벗어나고 싶었던 것 같다. 한국 사람은 만날 수 없었지만 숙소나 트레킹 코스에서 외국인 친구들을 만났다. 호주에서 온 친구들은 신기한 여행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윙프라우나 피르스트를 가는 것이 아니라 기차 없이도 직접 발로 걸어서 갈 수 있는 트레킹 코스를 지도에 표시해서 찾아다니고 있었다. 또 한 번은 호수를 따라 혼자 걸다가 잠시 벤치에 앉았는데, 미국인 친구들을 만났다. 호수에 다이빙하러 왔다가 같이 입수하자고 했다. 그렇게 그 친구들은 모조리 호수에 다이빙을 했고 추위를 이겨낸 것 같아 너무 개운하다며 다음 여행지로 차를 타고 유유히 사라졌다.

이렇게 좀 동떨어진 여행지를 다니며 두 무리의 친구들을 만나고 나서 여행이란 것이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를 줄 수 있을까 생각하게 되었던 것 같다. 그들에게는 정해진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하는 것'이 여행이고 그것이 곧 추억이자 행복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물론 사람들이 예쁘고 유명한 곳을 찾아다니는 것이 절대 나쁜 것이라 생각하지는 않는다. 나도 똑같이 그런 곳을 찾아다니고 있고 그것만의 매력이 확실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친구들이 가진 여행에 대한 가치관은 날씨나 돈과 같은 외부적인 요소에 영향받지 않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 나로부터의 행복을 찾을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다.

어쩌면 한국 사람들이 정해진 것을 따라가는 것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일지도 모르지만, 이처럼 그들과 우리는 다른 환경에서 자랐고 조금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서로 다른 것들 중에는 배워볼 만한 것들이 정말 많다. 행복을 찾는다는 것에 다들 동의하겠지만 '환경에 영향받지 않는' 행복을 찾는다는 것에는 분명 차이가 있다고 생각한다. 호주에서 중학교 때부터 일과 학업을 병행하며 본인 삶에 대해 고민을 하게 된다고 한다. 그래서인지 '나를 위한 삶' 혹은 '나만의 여행'에 대한 가치관이 확고하게 느껴졌다. 우리도 정해진 틀에서 좀 벗어나서 자신만의 행복을 찾는 문화를 배워야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러한 점에서 졸업을 미루고 교환학생을 도전하게 된 나에게 이 시간은 충분히 유의미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왜 다양한 사람을 만나고 넓은 세계를 바라봐야하는지, 그 경험들이 내 시각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직접 보고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수학문제를 풀 때 공식을 알려주고 5문제를 푸는 것은 쉽지만, 5문제를 풀고 공식을 만들어내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하지만 후자의 학생이 결국 남은 95문제를 더 수월하게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학창시절을 지나 대학에서도 그랬듯 지금 나는 새로운 단원을 학습하

기 시작했다고 생각한다. 좀 늦었지만 해외에 살면서 6개월간 다양한 사람들, 문제들을 접하기 시작했고, 여기서 만든 나만의 인생 공식으로 앞으로의 7,80년을 더 멋지게 살아갈 것이라 믿는다. 지금 당장 먼저 공식을 배워버린다면 10년 뒤에 텅텅 비어있는 나를 보며 후회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다.

교환 학생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직접 힘들게 돈 벌어서 새로운 것에 도전해보세요. 내 돈과 시간을 어딘가에 투자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때로는 아까운 것인지 느껴볼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제가 해본 일들 중에 가장 재미있는 일이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 확신합니다.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고 대화하면서 나라는 사람이 누군지 큰 가지 하나만 그려가도 앞으로의 삶이 더 재미있어질 것입니다.